

말씀의 샘

보움과 축복 <창세기 16:1~16>

사람들은 보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불신앙의 기초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사실 신은 아무런 보움도 아무런 반응도 없다는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시편 10:4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5 그의 길은 언제나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6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잠언 14:2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잠언 1:7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말씀을 통해 보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보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기 때문에 신앙의 기초가 생성될 수 없고 믿음의 성장도 없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갈수록 무신론적 크리스천들이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를 안 할까요? 왜 예배를 안 드리려 할까요? 왜 하나님 찾지 않을까요? 관념적으로는 믿지만 실제적인 보움과 응답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신론적 크리스천, 관념적 신앙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믿음이 없는 패역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보움하신다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보움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다소 부정적이지만 신앙안에서는 그것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고 기초가 됩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냥 적당히 세상을 즐기며 살아도, 아무런 보움이 없다고 여기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신앙은 뒷전에 방치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언의 말씀에는 그러한 자들에게 주시는 무서운 경고가 있습니다.

잠언 1:24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25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26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27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 같이 임하였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 같이 이르렀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28 그 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였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29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30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보움은 이처럼 어느 날 갑자기, 폭풍처럼 광풍같이 임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보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여러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랑과 인자가 많으시고, 세심하시며 인격적이십니다. 반면에 죄에 대한 심판을 하시며 훈련하시며 보움하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어느 순간부터 하갈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갈은 애굽에서 얻은 여인입니다. 이는 출애굽기 12장에서 아브람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예배를 통해 인도받지 않고 '환경'만 보고 갔다가 얻은 여인입니다. 그는 가정불화의 씨앗이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환경대로 움직인 것에 대한 보움입니다. 사례 또한 하갈로부터 무시를 당합니다. 15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전면적으로 무시하고 16장에 하갈을 아브람의 품에 들여보내어 이스마엘이 임신된 후로 두고 두고 마음아픈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례의 불신앙에 대한 보움입니다. 이 사례를 보면서 보움을 받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6:5 사례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다루심과 보움을 받을 때에, 남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며 원망합니다. 나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나의 미련함과 불순종과 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나를 탓하고 회개하고 고치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보움과 다루심은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믿음의 조상가문에서도 대를 이어서 예외없이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은 바로와 아비멜렉 앞에서 사 را를 누이라고 믿음 없는 거짓말을 합니다. 이삭도 아비멜렉 앞에서 리브가를 누이라고 똑같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들의 아들인 야곱은 그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이었으며 거짓으로 축복을 받고 도망가서 한수위인 라반을 만나서 결혼도 속고, 열 번이나 거짓말에 속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을 팔아 먹고 죽었다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야곱 아들중 거지인 유다는 머느리 다말한테서 속아서 베레스와 세라를 임신합니다. 나중에 총리가 된 요셉이 형제들을 속여서 형들의 간담을 서늘케 합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자녀들도 보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나쁜 습관을 고치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로 알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7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둘째, 하나님의 보움은 나를 변화시키는데 목적을 두십니다..

잠언 11:31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움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히브리서 12:6~11에서는 징계와 보움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관심이고, 선한 목적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11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니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브람이 믿음이 없어 사례의 말대로 하갈을 취한 후, 13년의 하나님의 침묵이 이어집니다.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람을 다시 만나주셨을 때는 그 약속을 더 소중하게 붙잡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잃어보고 보움을 받고 징계를 받으면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나를 돌아보고 고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결길로 가고 망한 이유는 형통만 있었기 보움이 없었기 때문이며, 다윗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이유는 혹독한 하나님의 보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보움을 통해 우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아무리 엉망진창으로 이중적인 생활하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살아도 아무런 보움과 채적 없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셋째, 보움을 응답과 축복으로 바꾸십시오.

보움을 응답과 축복으로 전환하려면 변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고 깨닫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보움과 징계, 어려움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좋지 못한 습관을 고치고 버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보움의 터널을 빨리 끝나게 하시며 축복으로 그것을 바꾸어주십니다. 이미 알고 깨닫고 고친 사람에게서는 징계가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빨리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시간을 오래 지나지 않고 회복됩니다. 빨리 깨닫고 고치면 하나님이 보움을 지속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이후에, 이삭이 태어난 후 가정에 또 한번의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며 괴롭게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이제는 영영 그 가정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자기와 자녀가 물론 보움을 받고 사막으로 쫓겨났지만, 그곳에서 하갈이 깨닫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버려짐과 죽음의 보움이 하갈에게 체험과 축복으로 바뀐 것입니다. 속이는 자 야곱의 압박강에서의 기도는 예서가 20년간 속이는 자 야곱을 해하려는 보움을 축복으로 바꾸었습니다. 압박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면서 기도할 때에, 마땅히 받았어야 할 '야곱'의 보움이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두란노 교회 성도 여러분! 나를 돌아보고 변화되고 기도함으로써 보움을 축복으로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2017년 1월 15일 주일예배 이 강화 목사

2017. 1. 22 주일 예배

찬양과 기도 ----- 찬양팀 (인도-구수진 사모)

대표기도 ----- 박 순전 집사 (다음주 : 이 기훈 셀장)

헌금

성경봉독 ----- 창세기 4:16~26

말씀선포 ----- 이 강화 목사

진정한 성공과 행복

축도

두란노 소식 ----- 4면에 있습니다

예배안내

주일예배 : 주일 오후 2시

수요예배 : 수요일 오후 8:00

금요예배 : 금요일 오후 8:00



말씀의 전파와 영성의 생명적 성장을 위한
두란노교회

